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기자정음’

언론 불신을 반영한 신조어 유행



‘기자정음은 기레기들을 위한 지침으로,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기 짤방 등에 떠도는 ‘기자정음’에 대한 설명이다.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을 네티즌들이 독자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기자정음은 예컨대 “속보=빠르게 베낀 기사”, “단독=혼자 베낀 기사”, “취재 결과=연합뉴스를 뒤져본 결과”, “팩트를 체크해본 결과=포털에서 검색해본 결과”, “아찔=여자 사진이 있는” 이런 식이다. 이른바 기자 같지 않은 기자들을 비꼬는 ‘기레기’의 또 다른 버전이다.

이런 비아냥과 조롱의 신조어가 생긴 원인은 언론에 대한 불신이다. 저널리즘에 입각한 깊이 있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복사해서 붙인 듯한 비슷비슷한 기사들,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선정적인 단순 폭로성 기사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기자정음’에 대해 변상욱 CBS 대가자는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수공을 안할 수도 없다”며 “시민들 스스로 언론해독력을 키워가다 보니까 비유적이고 풍자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걸 보니 우리 기자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

구나 하는 자괴감과 반성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작년 6월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36개국 중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미국의 유명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미국, 일본, 러시

아, 캐나다, 필리핀 등 38개국의 시민을 대상으로 언론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정치보도 37위, 전반적으로는 36위로 세계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K A A

이수지 susie@kaa.or.kr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기자정음

기사에 등장하는 표현	재해석	기사에 등장하는 표현	재해석
속보	빠르게 베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새끼 굉장히 내 맘에 안드네
단독	혼자 베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 악플 좀
종합	여러 기사들을 베꼈다	네티즌의 반응은	따지고 보면 내(기자)도 네티즌이니까
화제	아무도 관심 없는	관심이 뜨겁다	광고비를 받았다
충격	받을 일 전혀 없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비를 추가로 받았다
아찔	사진에 여자가 있는	바로 잡습니다	독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경악	여음구	한 매체에 따르면	나도 잘 모르긴한데
이별 수가	여음구2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아님 말고
최신 트렌드	작년에 유행한	자세한 사항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블루오션	레드오션	응답할 수 없는	우리언론이랑 반대진영의
~의 비결	누구나 다 아는 상식	국민 대다수가	이 사무실을 한국이라고 치면
취재 결과	연합뉴스를 뒤져본 결과		
팩트를 체크해본 결과	네이버에 두어번 검색해본 결과		
근황이 포착됐다	인스타그램에서 봤다		
구설수에 올랐다	트위터에서 봤다		